

통신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태도 고찰: 10-30대의 설문 조사를 중심으로*

백준영**

– 차례 –

1. 서론
2. 선행 연구
3.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4. 세대별 언어 태도
5. 결론 및 제언

*이 논문은 2020 세계한국어대회(2020.12.21.~2020.12.23., 서울드래곤시티 호텔)에서 발표한 「통신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태도 연구 - 세대별 언어 태도 비교를 중심으로 일상어와의 차이 확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연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junebaek90@yonsei.ac.kr

[국문초록]

본고는 통신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태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초기 통신 언어는 특정 집단을 중심으로 생성, 향유되었기에 이에 관한 연구는 통신 언어를 사회 방언으로 다루는 연구가 주가 되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연구 방향은 기존 언어 규칙을 위반하며 일상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통신 언어에 대해 초점이 맞춰졌다. 그렇기에 통신 언어에 대한 교정과 언어 교육 주제를 연구자 중심에서 다룬 연구들이 많았다.

본고에서는 통신 언어에 대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실제로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10대에서 30대의 인식을 설문 조사를 통해 살펴, 언어 사용자 중심에서의 통신 언어를 고찰하였다. 조사 결과를 통해 언어 사용자들이 일상어와 통신 언어에 대한 각기 다른 존재 의의와 가치를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는 통신 언어의 사용 양상 분석만으로는 살필 수 없었던 통신 언어 사용 맥락을 확인하는 연구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주제어: 통신 언어, 일상어, 언어 태도, 설문 조사, 언어 사용자

1.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이동 통신 기술은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책상 위 데스크톱으로만 접근할 수 있었던 기술은 오늘날 데스크톱의 몇십 배 작은 크기의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통신 속도 역시 더욱 빨라지는 추세이다. 이러한 흐름으로 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초기 통신 기술이 등장했을 당시 그 기술의 주된 사용자는 특정 계층에 머물러 있었다. 그렇기에 그들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할 때의 언어를 사회 방언의 형태로 보려고 하는 연구가 많았다. 시간이 흐르며 통신 기술의 사용에 있어 존재하던 제약과 한계들은 점차 제거됐다. 기술 사용자들의 범위 역시 특정 계층에서 벗어나 큰 범위로 확장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이렇게 통신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점차 높아가며 통신상에서의 의사소통 역시 증가했다. 문자, 사회적 소통망, 각종 인터넷 플랫폼 등을 통한 의사소통은 하루 동안 수없이 이뤄진다. 따라서 특정 계층의 언어 사용의 하나인 사회 방언의 연구 영역으로 한정되던 통신 언어는 더 큰 범위의 연구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변화를 겪은 통신 언어를 분석하기 위해선 사회언어학적 접근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단편적인 통신 언어의 사용 양상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는 앞으로 무수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될 통신 언어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이 불가하다. 따라서 통신 언어와 나아가 통신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이해를 돕기 위해선 그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들이 통신 언어에 대해 어떠한 언어 태도를 보이는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접근으로 통신 언어에 대한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벗어나 통신 언어가 지닌 우리 언어 체계의 또 다른 모습에 대한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라는 강력한 전염병으로 인해 점차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비대면으로 접촉하려고 하는 노력이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통신상에서의 만남은 무궁무진하게 발전되고 그 안에서 사용하는 의사소통 빈도 역시 기하급

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더는 통신 언어에 대한 어렵פות한 접근과 가벼운 이해를 통해 헤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통신 언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언어 태도를 고찰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때 일상어라는 비교 대상을 통해 통신 언어에 대한 언어 사용자 10대에서 30대까지 세대별 언어 태도를 확인한다.

2. 선행 연구

통신 언어에 관한 초기 연구는 사회 방언으로서의 통신 언어와 함께 일상어의 변이형으로 통신 언어를 바라보며 그 양상을 밝히는 내용이 주가 되었다. 이정복(2012)은 1990년대 초중반 PC 통신에서 쓰이기 시작한 통신 언어가 제한된 특정 공간이라는 환경으로 인해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들이 쓰던 은어의 성격이 강한 언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고 말한다.¹ 이정복(2005)은 통신 언어에 대해 특정 계층에서 사용하는 언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에 따라 통신 언어를 사회 방언으로 바라보며 그 특성을 밝히며 통신 언어가 지닌 그 특성 자체에 대해 살폈다.²

그러나 통신 언어를 사회 방언의 한 종류로 바라보고 은어로 주목한 초기 연구와는 다르게 2021년에서 통신 언어는 일상어와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렇기에 초기 연구 성과에서 벗어나 통신 언어가 정착하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현시점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조태린(2010)은 언어 규범은 언어 사용에서 인위적인 개입을 뜻하며 언어

1 이정복,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제20권 1집, 한국 사회언어학회, 2012. 179면.

2 이정복,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제27권, 한국어학회, 2005. 40면.

변이는 언어 사용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말한다.³ 이러한 연구 관점으로 현 시점의 통신 언어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인해 일상어로부터 자연스럽게 변이된 통신 언어에 대한 언어 사용자의 언어 태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민현식(2002)은 국어 사용 실태를 조사할 때 장기적이고 정기적인 기초 조사를 강조하며 언어 의식, 다시 말해 언어 태도에 대한 조사 항목을 언급했다.⁴ 따라서 실제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해 살필 때는 언어 사용자의 언어 태도를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언어 태도를 살피는 연구를 통해 시정곤(2004)은 통신 언어를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우리 문화의 한 측면을 살필 수 있다고 말한다.⁵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통신 언어에 대한 기존 관점에서 벗어나 현시점에서의 통신 언어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최근 5년 이내의 통신 언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연구 성과가 존재한다. 모바일 메신저 내에서의 대학생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 연구한 박종호(2017)⁶, 대학생들의 카카오톡 내 사용 언어가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을 살핀 간호배(2017)⁷, 통신 언어를 언어사용역으로 말하는 신승용(2018)⁸, 일반 언중이 사용하는 통신 언어가 아닌 공공기관의 통신 언어 사용 양상을 확인한 김유진(2021)⁹과 통신 언어 내 명사형 어미

3 조태린, 「언어 규범과 언어 변이의 문제」, 『사회언어학』 제18권 2집, 한국사회언어학회, 2010. 189-190면.

4 민현식,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제10권 1집, 한국사회언어학회, 2002, 74면.

5 시정곤, 「디지털 네트워크와 사이버 언어의 미래」, 『한국학연구』 제20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 2004. 46-47면.

6 박종호, 「대학생들의 모바일 메신저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론총』 제20집, 태민국학연구원, 2017. 271-296면.

7 간호배, 「대학생들이 카카오톡 언어가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리터러시연구』 제19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39-60면.

8 신승용, 「통신언어의 코드적 특성과 언어사용역」, 『동아인문학』 제45집, 동아인문학회, 2018. 83-104면.

9 김유진, 「서울특별시 SNS 통신 언어의 특징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언어와언어학』 제9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21, 29-47면.

‘-(으)ㄴ’ 종결문 사용 양상을 연구한 진현재(2021)¹⁰ 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연구자 중심 연구에서 나아가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태도를 확인하는 본격적인 연구가 아직 없다는 것, 언어 사용자들의 사용 양상 중심으로의 분석 연구가 중심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을 고려하며 언어 사용자들이 가지는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3. 조사 대상과 자료 수집

조사 대상은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사용자이다. 조사 대상자와 대면 설문 조사를 할 수 없는 상황적 배경으로 인해 비대면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을 통한 전달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그 플랫폼은 구글 설문 프로그램에 기초한다. 카카오톡과 구글 설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연구인만큼 연구자 관계 중심의 응답자가 주된 설문 응답 집단으로 선정되었다. 따라서 서울, 경기도 거주하거나 학교와 직장에 소속되어 있는 10대에서 30대가 조사 문항에 답했다. 조사의 변인은 세대로 설정을 하였다. 설문 응답자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결과를 살핀 것에는 언어 사용자 간의 나이 변이가 집단을 형성하고 소통할 때 일차적인 변이로 작용한다는 것을 고려한 결과이다. 조사는 2020년 6월 21일부터 23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3.1. 조사 대상

설문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는 총 261명이었다. 그들 중 10대는 76명(29.1%), 20대는 75명(28.1%), 30대는 86명(33%)이었다.

10 진현재, 「통신 언어 내 명사형 어미 ‘-(으)ㄴ’ 종결문의 사용 양상과 문법적 기능 연구」, 『한국어의미학』 제72권, 한국어의미학회, 2021. 59-87면.

〈표 1〉 조사자 정보

세대	10대	20대	30대
표본	76(32.1%)	75(31.6%)	86(36.3%)
전체 표본	237		

3.2. 자료 수집

조사 문항의 경우 총 7문항으로 일상어와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조사 내용으로 구성이 되었다. 7문항 중 규범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문항과 함께 일상어와 통신 언어에 대한 언어 사용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언어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에 따라 일상어와 통신 언어의 실제 사용 양상을 먼저 묻고 그에 대한 언어 태도를 확인하는 문항이 추가되었다. 통신 언어에 대한 문항 중에는 통신 언어가 일상어와 달리 지닌 가치에 관해 묻는 문항과 함께 통신 언어 교육의 필요성에 관해 확인하는 문항으로 내용으로 구성했다. 언어 사용자들이 통신 언어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그리고 각 태도를 지니게 된 배경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자들이 언어 전공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전제로 일상어와 통신 언어에 대해 개념을 설명하며 통신 언어의 경우 일상어와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통신어라 칭했다. 통신 언어의 경우 통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공간에서 사용되는 모든 말과 글을 포함했다. 더불어 통신 매체의 경우 의사소통이 주가 되는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정하고 그에 해당하는 언어 사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4. 통신 언어와 일상어에 대한 세대별 언어 태도

4.1. 통신 매체를 사용한 의사소통 시간 확인

〈표 2〉 세대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 매체

매체 세대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4시간 이상	전체 표본
10대	20(26.3%)	26(34.2%)	12(15.8%)	12(15.8%)	6(7.9%)	76
20대	16(21.4%)	29(38.6%)	15(20%)	6(8%)	9(12%)	75
30대	17(19.7%)	28(32.6%)	9(10.5%)	10(11.6%)	22(25.6%)	86

통신 언어에 대한 인식 조사에 앞서 통신 매체를 이용한 평균적인 의사소통 시간을 먼저 확인했다. 10대~30대까지 가장 비율이 높았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이다. 10대의 경우 34.2%가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통신 매체를 이용한 시간이라 답했다. 20대의 경우 38.6%, 30대의 경우 32.6%가 답했다. 10대와 20대는 두 번째로 높은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각 26.3%와 21.4%였지만, 30대 경우 4시간 이상이 두 번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2. 세대별 사용 빈도가 가장 많은 통신 매체

〈표 3〉 세대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통신 매체

매체 세대	문자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기타	전체 표본
10대	3(4%)	51(67.1%)	15(19.7%)	1(1.3%)	6(7.9%)	76
20대	0	70(93.4%)	0	0	5(6.6%)	75
30대	0	81(94.2%)	0	0	5(5.8%)	86

세대별 통신 이용한 의사소통을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매체에 대해 ‘카카오톡’이란 응답이 모든 세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초기 통신 언어 사용에서 문자가 주된 사용 매체가 되었던 시기에서 인터넷 속도의 증가와 통신 기술 발달로 인한 배경으로 카카오톡이 통신상 의사소통에서 큰 비율로 이용되는 것을 설문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규범적인 일상어 사용 여부

〈표 4〉 세대별 규범적인 일상어 사용 정도

세대 \ 정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표본
10대	12(15.8%)	29(38.2%)	25(32.8%)	8(10.6%)	2(2.6%)	76
20대	9(12%)	37(49.4%)	14(18.6%)	12(16%)	3(4%)	75
30대	6(6.9%)	44(51.2%)	24(27.9%)	10(11.6%)	2(2.4%)	86

조사 대상자들에게 먼저 ‘일상어를 사용할 때 규범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설문 조사를 시행하기 전 ‘규범적’이라는 표현이 ‘언어 규칙에 맞다’에 해당하는 의미라는 것에 대해 추가 안내를 하였다. 이때 말하는 언어 규칙 역시 나라에서 정하는 것임을 설명했다. 10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15.7%, ‘그렇다’가 38.1%로 응답한 과반수가 일상어를 사용할 때 규범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20대의 경우 ‘매우 그렇다’가 12%, ‘그렇다’가 49.3%로 20대 역시 과반수가 일상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한다고 답했다. 30대는 ‘매우 그렇다’가 6.9%, ‘그렇다’가 51.1%로 과반수가 일상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한다 답했다. 이 문항을 통해 일상어를 규범적인 언어로 대하는 언어 사용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5〉 세대별 규범적인 일상어를 사용하는 이유

이유 세대	규칙적인 언어 사용 필요	원활한 의사소 통을 위해	상대방 의식	자기만족	기타	전체 표본
10대	5(12.2%)	22(53.6%)	8(19.6%)	6(14.6%)	0	41
20대	12(26.1%)	15(32.6%)	9(19.5%)	8(17.4%)	2(4.4%)	46
30대	18(36%)	21(42%)	6(12%)	5(10%)	0	50

규범적인 일상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응답한 사람들만 규범적인 일상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문항에 답을 했다. 10대~30대의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라고 답했다. 위와 같은 응답 내용을 통해 세대별 언어 사용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시 규범적인 언어 사용의 가치와 그 의의를 인식하며 소통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10대와 달리 20대와 30대는 ‘규칙적인 언어 사용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10대의 경우 ‘상대방 의식’ 19.6%, ‘자기만족’ 14.6%로, ‘규범적인 언어 사용 필요’에 대한 응답 비율이 12.2%로 가장 낮았다.

4.4. 규범적인 통신 언어 사용 여부

〈표 6〉 세대별 규범적인 통신어 사용 정도

정도 세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표본
10대	11(14.4%)	23(30.3%)	24(31.5%)	16(21.1%)	2(2.7%)	76
20대	6(8%)	28(37.3%)	23(30.6%)	15(20%)	3(4.1%)	75
30대	8(9.3%)	31(36.1%)	32(37.3%)	12(13.9%)	3(3.4%)	86

일상어에 이어서 ‘통신어 또한 규범적으로 사용하는가’를 확인했을 때 10대의 경우 ‘보통이다’라고 답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14.4%와 30.2%가 답을 했다. 20대의 경우 ‘그렇다’가 37.3%로 가장 높은 비율로 답을 했으며, 30대의 경우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미세한 차이로 비슷

한 비율로 응답했다. 그에 따라 기존 통신 언어 연구에서 ‘통신 언어가 일상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에 대한 연구 내용은 언어 사용자들의 태도에서 확인했을 때 정말 그러한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된다.

〈표 7〉 세대별 규범적인 통신어를 사용하는 이유

세대 \ 이유	규칙적인 언어 사용 필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상대방 의식	자기만족	기타	전체 표본
10대	4(11.7%)	13(38.2%)	8(23.5%)	9(26.4%)	0	34
20대	10(29.4%)	13(38.2%)	5(14.7%)	5(14.7%)	1(2.9%)	34
30대	15(38.4%)	13(33.3%)	5(12.8%)	4(10.2%)	2(5.1%)	39

세대별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로 답한 이들에게 통신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관해 물었을 때 10대, 20대의 경우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러나 10대의 경우 상대방을 의식해서 규범적인 통신어를 사용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던 반면 20대의 경우 규칙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았다. 30대의 경우 ‘규칙적인 언어 사용이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규범적인 통신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두 번째로 높았다. 10대의 경우 ‘규칙적인 언어 사용 필요’라고 답한 비율이 응답 비율 중 가장 낮은 것, ‘상대방 의식’과 ‘자기만족’을 위한 규범적인 통신어를 사용한다는 태도와 비교한다면 10대와 20대·30대 간의 통신어의 ‘규칙적인 언어 사용 필요’에 대한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앞서 일상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결과와 같았다. 따라서 10대의 경우 ‘규칙적인 언어 사용 필요’에 대한 중요도가 20대와 30대와 다르게 일상어, 통신어에서 모두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8〉 세대별 규범적인 통신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이유 세대	규칙적인 언어 사용의 적은 부담	소통 시 의도가 잘 드러나기 때문	통신어 자체의 특성이라 인식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 익숙	기타	전체 표본
10대	3(16.6%)	10(55.6%)	1(5.6%)	4(22.2%)	0	18
20대	3(16.7%)	4(22.2%)	4(22.2%)	6(33.3%)	1(5.6%)	18
30대	3(20%)	6(40%)	4(26.6%)	2(13.4%)	0	15

통신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라 답한 이들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관해 확인했다. 10대의 경우 ‘의사소통 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규범에 어긋난 표현을 계속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되었다’라고 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30대의 경우 ‘의사소통 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상어와 같이 통신 언어에 대한 규범적인 언어 사용 여부를 확인했을 때 세대별로 모두 과반수가 규범적인 통신 언어를 사용한다고 답했다. 통신 언어의 연구 중 규범에 어긋난 언어 변이형으로 연구되며 부정적인 언어 사용 양상으로 다뤄지던 통신 언어에 관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태도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5. 통신 언어의 가장 큰 특징

〈표 9〉 일상어와 비교할 때 확인할 수 있는 통신어의 특징

특징 세대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어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민감	언어 사용자의 개성적 표현 가능	타인 평가 중 요성 미비	기타	전체 표본
10대	40(52.6%)	16(21.1%)	14(18.4%)	3(3.9%)	3(3.9%)	76
20대	27(36%)	16(21.3%)	27(36%)	2(2.6%)	3(4.1%)	75
30대	39(45.4%)	15(17.4%)	29(33.7%)	1(1.2%)	2(2.3%)	86

일상어와 비교할 때 통신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지 묻는 문항에 10대는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6% 가장 높았다.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와 ‘언어 사용자의 개성적 표현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21%, 18.4%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어’와 ‘언어 사용자의 개성적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응답이 같은 비율로 가장 높았다. 30대 역시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모든 세대에서 통신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을 다양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응답했다.

4.6. 통신 언어 교육의 필요성

〈표 10〉 통신어 교육의 필요성

정도 세대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전체 표본
10대	9(11.9%)	28(36.8%)	22(28.9%)	14(18.5%)	3(3.9%)	76
20대	7(9.3%)	30(40%)	13(17.3%)	22(29.3%)	3(4.1%)	75
30대	14(16.3%)	32(37.2%)	19(22%)	17(19.8%)	4(4.7%)	86

일상어와 통신 언어에 대해 규범적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의식하고 있는 언어 사용자들에게 ‘그렇다면 통신 언어 교육이 필요한가’에 관해 물었다. 10대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6.8%, ‘매우 그렇다’가 11.8%로 통신 언어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8.6%였다. 20대의 경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0%, ‘매우 그렇다’가 9.3%로 통신 언어 교육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49.3%였다. 30대 역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를 답한 비율이 과반수가 됐다.

〈표 11〉 통신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

이유 세대	일상어에 부정적 영향	올바른 언어 사용 강조	언어 규칙 유지	아름다운 통신 언어문화 창조	기타	전체 표본
10대	13(35.1%)	10(27.1%)	0	14(37.8%)	0	37
20대	15(40.5%)	7(18.9%)	1(2.7%)	13(35.2%)	1(2.7%)	37
30대	17(36.9%)	15(32.7%)	0	10(21.8%)	4(8.6%)	46

‘통신 언어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문항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답한 이들에게 통신 언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관해 물었다. 조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아름다운 통신 언어문화 창조’ 문항에 대한 추가 안내를 하였다. 이때 의미는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언어 사용자 간의 향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문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10대의 경우 ‘통신 언어 교육을 통한 아름다운 통신 언어문화를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37.8%로 가장 높았다. 20대의 경우 ‘통신 언어가 일상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이 40.5%로 가장 높았으며 같은 이유로 30대는 36.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했다. 통신 언어를 사용할 때 규범적으로 사용한다는 응답이 과반수가 되었던 것과 함께 통신 언어가 일상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응답을 통해 통신 언어가 규범을 지키고, 일상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선 교육해야 한다는 언어 사용자들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표 12〉 통신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이유 세대	일상어에 무관한 영향	통신어 자체의 가치 유지	교육의 대상이 아님	교육 불가능	기타	전체 표본
10대	2(11.8%)	2(11.8%)	6(35.3%)	6(35.3%)	1(5.8%)	17
20대	2(8%)	8(32%)	8(32%)	5(20%)	2(8%)	25
30대	1(4.8%)	6(28.6%)	10(47.6%)	2(9.5%)	2(9.5%)	21

통신 언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 중 10대의 경우 ‘통신 언어 자체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며’, ‘통신 언어는 교육할 수 없다’라고 답한 응답이 많았

다. 다음으로 통신 언어가 일상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통신 언어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20대의 경우 ‘통신 언어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와 ‘통신 언어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통신 언어는 교육할 수 없다고 답을 했다. 실제 통신 언어에 대한 교육 내용을 고려해 볼 때 통신 언어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며 악성 댓글에 대한 교육만이 내용으로 다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30대의 경우 ‘통신 언어는 교육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한 응답이 우세했다. 교육 대상으로의 통신 언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다음으로 통신 언어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대부분 세대에서 통신 언어 교육이 불필요하다 응답한 이유 중 통신 언어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한 응답을 통해 언어 사용자들은 통신 언어가 일상어와 구분되는 자체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그러한 통신 언어의 가치는 교육의 대상이 아닌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되는 가치라는 것임을 설문 조사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었다.

5. 결론 및 제언

앞서 살핀 설문 조사를 통해 일상어와 통신 언어에 대한 세대별 언어 태도를 확인했다. 세대별 조사 결과에서 공통으로 규범적인 언어 사용에 대한 중요성을 대다수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와 더불어 통신 언어를 일상어보다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태도를 확인했다. 그러나 그 태도에는 원활한 의사소통과 언어 규칙의 유지를 위해 규범적인 사용 양상이 지켜지는 선에서 통신 언어를 자유롭게 사용해야 한다는 언어 사용자들의 의식을 볼 수 있었다. 이처럼 연구자 중심으로 통신 언어 사용 양상만을 살피는 선행 연구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언어 사용자의 태도와 실제 언어 사용 양상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다. 그렇지만 언어 사용자의 언어 태도와 실제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설문 조사에서 나아가 개별 면담을 통해 그 차이를 줄이는 연구 내용이 필요하다.

초기 통신 언어가 등장하고 그 언어를 누리는 계층은 그 기술을 누릴 기회가 허락된 직업군이나 나이였다. 그렇기에 사용자 계층을 확연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던 시대에서는 통신 언어 사용자들에 관한 연구와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 양상이 얼마나 일상어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가에 관해 관심을 기울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며 통신 언어를 사용하는 집단이 점차 통신 기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신세대와 청소년들에게 집중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나이별 인식과 문화가 통신 언어문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렇기에 사회 방언으로써의 통신 언어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나 2000년 후반에 들어오며 기술적 제한이 더 존재하지 않는 환경으로의 변화로 인해 통신 언어는 더 넓은 세대에서 일상처럼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통신 언어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변화와 밀접한 언어 체계이다. 점차 비대면이 증가하는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일상어와 통신 언어를 구분하여 인지하기 어려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렇기에 ‘통신 언어가 어떠한 의미로 존재하고 어떤 사용 양상을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지속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통신 언어 연구를 어떠한 관점으로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언어 연구자 중심으로 통신 언어를 언어 변이의 관점으로만 통신 언어를 바라본다면 통신 언어에 관한 진정한 연구가 불가능할 것이다.

통신 언어의 유의미한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통신 언어의 특성을 밝히는 한편 실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이들의 태도를 함께 고찰해야 한다. 이때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이 존재한다. 먼저 대면하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일반화가 될 전망이다. 그렇게 온라인상에서의 삶이 익숙해진다면 앞으로 일상어에 대한 개념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상에서의 의사소통을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구분한 개별적인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통신 언어가 사용되는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대상이 되는 각기 다른 언어 사용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ABSTRACT]

A study on language attitudes of communication language users:
Focusing on a Survey of 10s and 30s

Paik, Junyoung(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language attitudes of communication language users. Early communication language was created and enjoyed by a specific group, so research on communication language mainly deals with social dialect. At the same time, another research direction focused on communication languages that violate existing language rules and negatively affect everyday speech. Therefore,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hat dealt with the topic of proofreading and language education for communication languages, centered on researchers.

In this study, the perception of 10s to 30s who actually use the communication language was examined through a survey, and the communication language was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users. Through the survey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language users perceived different meanings and values of everyday language and communication language. These achievements can provide a new basis for research that confirms the context of communication language use, which could not be looked at only by analyzing the usage pattern of communication language.

Key words: Communication Language, Everyday Language, Language Attitude, Survey, Language Users

[참고문헌]

■ 논문

- 간호배, 「대학생들이 카카오톡 언어가 글쓰기에 미치는 영향」, 『리터러시연구』 제19집, 한국리터러시학회, 2017, 39-60면.
- 김유진, 「서울특별시 SNS 통신 언어의 특징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언어와언어학』 제91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언어연구소, 2021, 29-47면.
- 민현식, 「국어 사용 실태 조사 방법론 연구」, 『사회언어학』 제10권 1집, 한국사회언어학회, 2002, 73-112면.
- 박종호, 「대학생들의 모바일 메신저 언어 사용에 관한 연구」, 『국학연구논총』 제20집, 태민국학연구원, 2017. 271-296면.
- 시정곤, 「디지털 네트워크와 사이버 언어의 미래」, 『한국학연구』 제20권,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 2004. 45-73면.
- 신승용, 「통신언어의 코드적 특성과 언어사용역」, 『동아인문학』 제45집, 동아인문학회, 2018. 83-104면.
- 이정복,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 언어 분석하기-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제27권, 한국어학회, 2005. 37-79면.
- 이정복, 「스마트폰 시대의 통신 언어 특징과 연구 과제」, 『사회언어학』 제20권 1집, 한국사회언어학회, 2012. 177-211면.
- 조태린, 「언어 규범과 언어 변이의 문제」, 『사회언어학』 제18권 2집, 한국사회언어학회, 2010. 189-214면.
- 진현제, 「통신 언어 내 명사형 어미 ‘-(으)ㄴ’ 종결문의 사용 양상과 문법적 기능 연구」, 『한국어의미학』 제72권, 한국어의미학회, 2021. 59-87면.

부록

일상어와 통신어에 대한 언어 사용자들의 언어 태도 연구

이 설문지는 일상어(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와 통신어(통신 기술을 활용한 가상 공간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할 때 언어 사용자의 인식을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조사자는 설문지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하십니까?

1. 당신의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2. 평소 하루 동안 통신 매체(카카오톡, 문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소통(메시지 주고받기, 게시물 업로드, 댓글 달기 등)을 어느 정도 하십니까?

① 1시간 미만 ②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③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④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⑤ 4시간 이상

3. 소통에 사용하는 통신 매체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① 문자 ② 카카오톡 ③ 페이스북 ④ 트위터 ⑤ 기타()

4.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규범적인(언어 규칙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춤법 준수, 표준어 사용, 정확한 띄어쓰기, 줄임말 비사용 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4.1. (4번 문항에서 ①,②라고 답하신 분들만)

그렇다면 일상어(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이유, 혹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언어는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혹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②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③ 상대방을 의식해서(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상대방이 자신을 언어 규범을 모른다고 생각할까 봐)
④ 자신의 만족감
⑤ 기타()

5. 통신 매체에서 소통하는 동안 규범적인(언어 규칙에 부합하는) 언어 사용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춤법 준수, 표준어 사용, 정확한 띄어쓰기, 줄임말 비사용 등)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5.1. (5번 문항에서 ①,②라고 답하신 분들만)

그렇다면 통신어(통신 매체에서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규범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이유, 혹은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언어는 규칙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혹은 그렇게 교육받았기 때문에)
- ②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 ③ 상대방을 의식해서(상대방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상대방이 자신을 언어 규범을 모른다고 생각할까 봐)
- ④ 자신의 만족감
- ⑤ 기타

5.2. (5번 문항에서 ④,⑤라고 답하신 분들만)

그렇다면 통신어(통신 매체에서 의사소통할 때 사용하는 언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이유, 혹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상어와 달리 언어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이 덜하므로
- ② 소통을 할 때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예를 들어 헐, 넵, ㅋㅋㅋㅋ 등의 사용을 통해 자신의 감정이나 의도가 더 잘 드러난다고 생각)
- ③ 통신어가 지닌 그 자체의 특성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 ④ 자연스럽게 쓰다 보니 익숙해졌기 때문에
- ⑤ 기타()

6. 일상어와 비교할 때 통신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다양하고 자유로운 언어 사용
- ② 사회·문화적인 현상에 민감
- ③ 언어 사용자의 개성적 표현 가능
- ④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중요성 미비
- ⑤ 기타()

7. 통신어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7.1. (7번 문항에서 ①,②라고 답하신 분들만)

그렇다면 통신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신어 사용이 일상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② 올바른 언어 사용을 강조하기 위해
③ 언어의 규칙을 유지하기 위해
④ 통신어 교육을 통해 아름다운 통신 언어문화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⑤ 기타()

7.2. (7번 문항에서 ④,⑤라고 답하신 분들만)

그렇다면 통신어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일상어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② 통신어 자체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자유로운 언어 사용)
③ 교육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므로
④ 교육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혹은 교육 효과가 미비하리라 판단하기
때문에)
⑤ 기타()